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월



2023. 봄호

# 168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원

## 2023년 봄호 통권 168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중기  
발행일 2023년 4월 28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유반야(내부) 김현지 이가영 이지혜 정재운(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승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 피내면서

계간 소식지 『민주공원』은 한 해 주제를 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서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은 ‘평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맺은 협정”. 한 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렇게 평화는 가까운 듯하지만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뤄진 듯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만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평화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도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봄호에서는 평화란 어떤 의미인지 물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민주공원 인근 4월 중순쯤 피던 겹벚꽃이 올해는 10일여 일찍 피어 벌써 꽃이 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매년 봄날의 꽃놀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옷장 정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찾아온 봄날에 2023년 첫 호를 펴냅니다. 🌸

## 목 차

04

**4대항쟁** 4·19혁명 63주년 부산기념행사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행사

06

**민주공원** 제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100년 맞이 수상작 전시 &  
그림교실 <어린이 태극기 그림방>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⑤ - 중구·영도구 세 번째 길 \_정다솜

민주공원 길라잡이 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20

**주 제** (평화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바랍니다 \_김준우

안돼!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건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_김해창

야만의 페이지를 넘기며 \_정재운

33

**더 나은** 차별 받지 않을 자유 \_김민우

36

**기억에서 기록으로** 현책방 법학책에 숨어있던 열사의 외침  
- 故 김상진 열사 관련 사료 기증 \_김호민

38

**민주사랑방**

40

**민주알림방**



## 제63주년 4·19민주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

<제63주년 4·19민주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4월 18일(화) 오후 2시 4·19혁명 희생자 영령 봉안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함께 주관하고 부산지방보훈청이 주최했습니다.

김종기 부산민주공원 관장, 김용성 4·19민주혁명희 부산광역시지부장, 전중호 부산지방보훈청장, 배재한 국제신문사 사장, 장승희 부산시 총무과장, 이재동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4·19혁명희생자 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올리고 추모 위령 제문을 낭독, 헌주와 재배,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인 김경미 선생이 4·19혁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무를 쳤습니다.



##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4월 19일(수) 오전 10시 4·19광장 4·19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가 봄비가 내리는 속에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4·19혁명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에 이어 4·19혁명 유공자 정부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추모헌시 낭송과 부산시립합창단의 추모 합창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 우리지역

### 4·19길 따라가기

4월혁명 기념사업으로 우리지역 4·19길 따라가기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4월 8일(토)에 진행했습니다. 4.19혁명희생자위령탑, 마산 3.15의거탑 등 부산경남의 4.19혁명 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 4월혁명 63주년 기념 초청토론회

4월혁명 63주년 기념 초청토론회 <위기  
의 세계체제, 한반도 그리고 한일관계>가  
2023년 4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P에서 열렸  
습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기조강연을 했  
습니다. 김종기 부산민주공원 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제1토론은 원동욱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가, 제2토론은 김진  
영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  
주주의사회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행사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은 5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열립니다. 5·18민중항쟁,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의 유족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은폐, 왜곡되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시민들과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념식에 앞서 4월 22일(토)과 23일(일) 1박 2일 동안 5.18의 현장을 탐방하는 <5.18 현장답사 함께 걸어요 오월길!>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5.18민중항쟁과 6월민주항쟁을 기념·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오월에서 유월로 청년서포터즈의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임유리 삼일절의 정신을 이어받자. 대한민국국회의장상

## 제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소재로 한 상상화 그리기 대회인 <제 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3월 1일(수)부터 3월 10일(금)까지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총 1,087점의 그림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8일(토) 심사위원회(박주호, 곽영화, 양주원, 이봉미, 전영주)의 심사를 걸쳐 총 82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박주호 심사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수상작들에서 공통점은 주제어를 기반으로 본인의 사고를 창의력 있게 표현하였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만나 다양한 상상력



김주빈 시대를 넘어선 불꽃놀이 여성가족부장관상

을 펼치고, 거기에다 자기의 해석을 통해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역사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내는 아이들의 생각에 신선함마저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상작이든 아니든 모두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은 그 자체로 자기만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알아 가기를 바랍니다.”라며 이번 대회에 그림을 출품해 준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10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수상작은 민주공원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전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작 중 일부 작품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



손채원 백두호랑이 대한민국\_부산광역시장상



이지민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이 비추며...\_부산광역시교육감상



조가연 5·18의 광주민주화 운동\_부산광역시의회위원장상



박서영 건곤감리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_부산대학교총장상



지연우 대한민국 만세\_부경대학교총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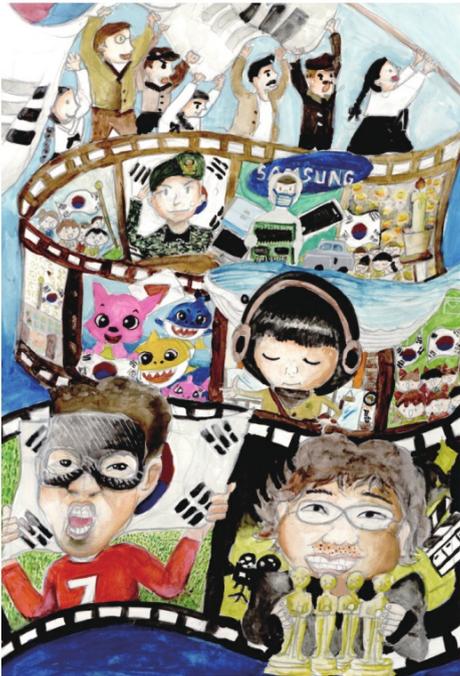
김민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그렸다\_부산지방보훈청장상



서윤서 민주공원에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_부산광역시중구청장상



허은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_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상



신윤아 영광의 순간에는 태극기와 함께\_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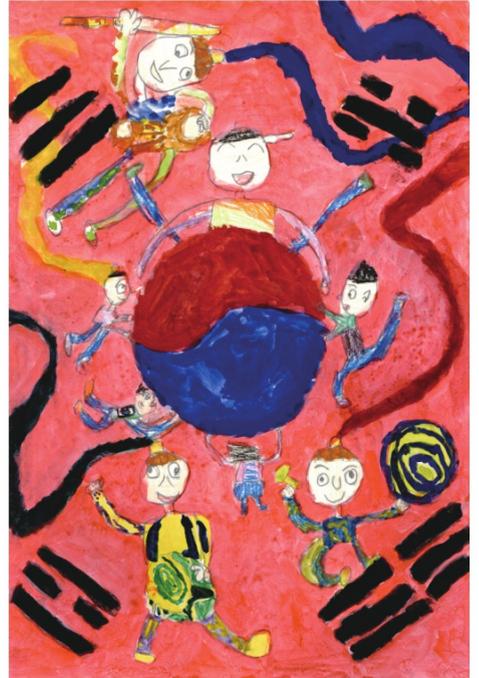
신예림 행복 대한민국\_부산미술협회이사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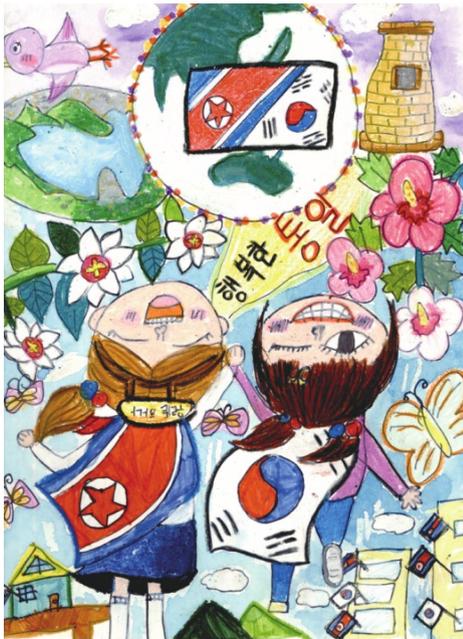
김민율 2030 부산 엑스포 파이팅\_부산일보사장상



신준범 3·1절 모두 함께해요. 국제신문사장상



최우빈 신나는 대한민국 즐거운 대한민국\_부산민예총이사장상



이가민 함께 나는 세상, 함께 나는 우리나라. KBS부산방송총국장



장윤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의 힘\_KNN사장상

##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10년 맞이 수상작 전시 & 그림교실 〈어린이 태극기 그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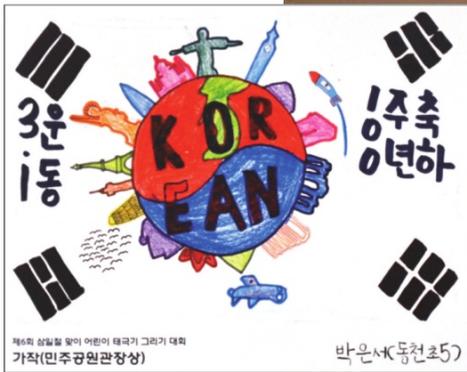
2023년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10년을 맞이하여 지난 9년간 수상된 작품들을 펼쳐보였습니다. 전시는 3월 1일(수)부터 4월 2일(수)까지 한 달여간 민주공원 잠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민주공원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자주독립정신 고취와 문화예술 정서 함양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 8·15 광복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까지 3,389명의 어린이들의 참가하였고 788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기억하는 독립운동은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평화통일과 시민의 삶은 무엇인지, 어린이 태극기 그림방에 펼쳐진 상상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⑤ - 중구·영도구 세 번째 길 모두의 연대로 이어진 길

정다솜 | 민주공원 문화예술교육

### 대각사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9

1987년 2월 대각사에서서는 전두환 군부독재 아래 잔인한 고문으로 세상을 등진 박종철 열사의 추도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대각사 주변을 봉쇄하면서 추도대회는 무산되었고, 추도객들은 대각사 인근의 극장가에 집결하여 국제시장, 광복로 등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시위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후 3월 3일 평화대행진을 비롯하여 6월민주항쟁의 크고 작은 시위들이 대각사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 부산근현대역사관(옛 부산미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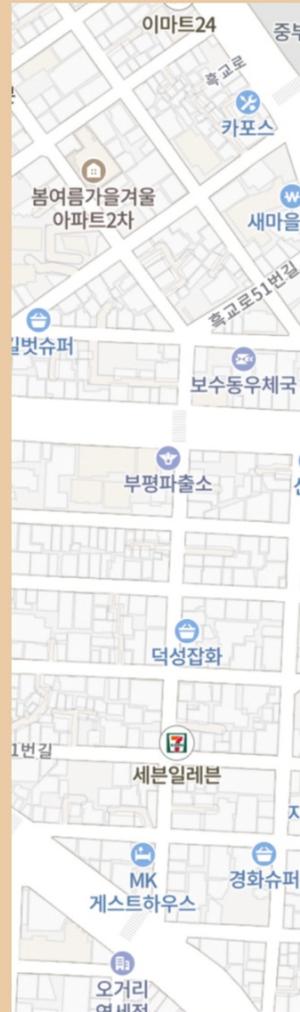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4

부산근현대역사관은 1929년 동양적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건립되었고, 해방 이후부터 1999년까지 부산미문화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유혈 진압을 용인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미문화원을 방화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 후반 줄을 이었던 미국 점유 건물에 대한 시위의 기원이 되며 반미 자주화라는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 부산가톨릭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1987년 6월 16일 부산시내에서는 9개 대학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연합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을 피하던 시위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가톨릭센터



※ 네이버 지도 참조

대는 가톨릭센터 앞에서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톨릭센터는 시위대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시위대는 이곳에서 약 일주일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어진 부산가톨릭센터에 서의 농성은 주춤하던 6월민주항쟁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201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가톨릭센터 앞에 설치된 6월민주항쟁중심지표석은 6월민주항쟁의 불길을 살려낸 그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 부산중부교회

▶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13-6

책 냄새가 커커이 묻어있는 보수동책방골목 안에는 세월이 녹아있는 작은 교회, 부산중부교회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각종 시국 강연회와 기도회가 열리는 장소였던 부산중부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산중부교회에 취임해 다양한 인권운동과 사회사업을 펼쳤던 최성목 목사는 1979년 유신정원에 의해 체포되어 부마민주항쟁의 배후 주동자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암울한 역사 속 민주화의 초석을 닦는 데 함께하였던 부산중부교회는 부산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협동서점 터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46번길 10-1

협동서점은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의 직영 서점이었습니다. 1978년 설립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은 좋은 책을 통해 지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하여 참다운 부산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협동서점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하자 계엄당국은 조합원들을 배후로 의심하였고, 압력을 받은 조합은 해산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청년 학생들이 교류하고 소통하였던 협동서점의 흔적은 보수동책방골목 한편에 남아있습니다. 📖

부산중부교회



협동서점 터





## 민주공원 길라잡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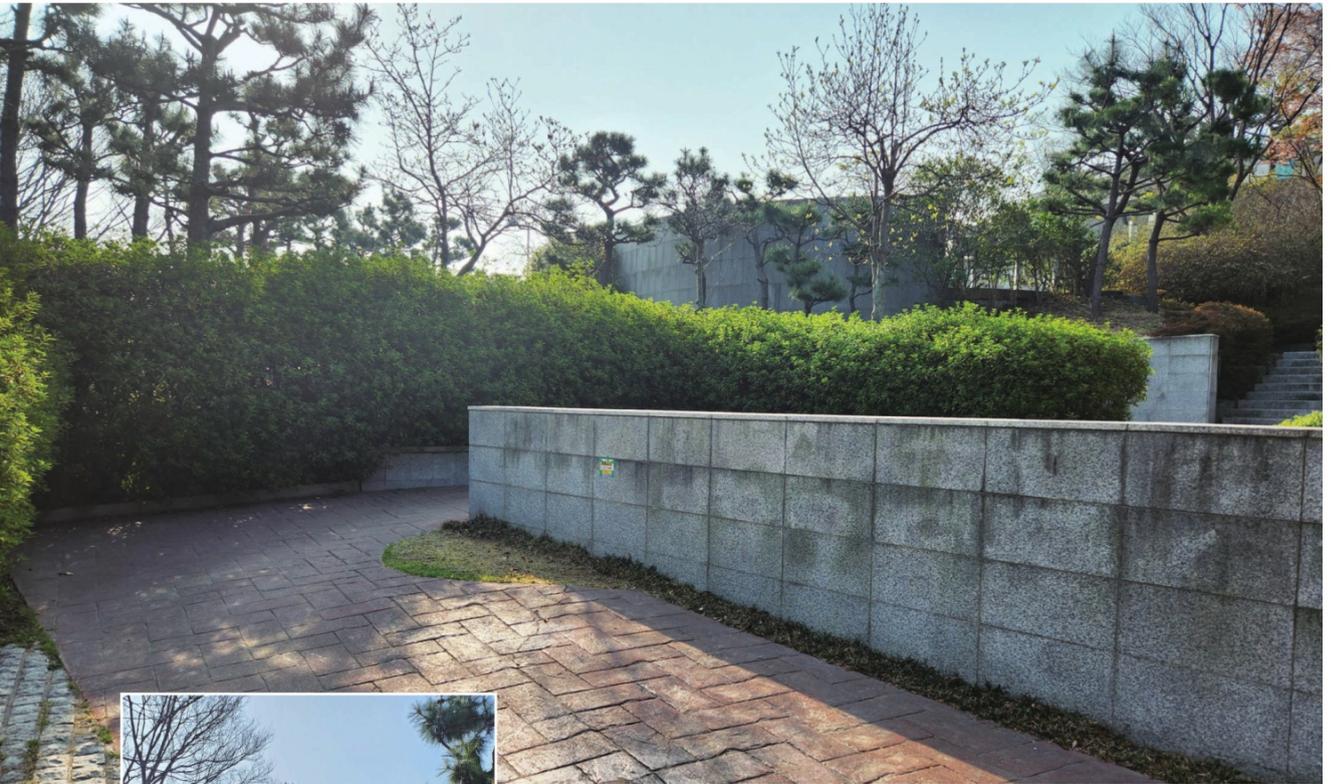
#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장벽이 없음, 즉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설 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장애(無障礙),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도 같은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리어프리 건축, 디자인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공원 곳곳에서도 배리어프리 공간과 시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 1999년 개관한 민주공원이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부터 배리어프리 개념을 품고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민주공원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민주공원을 즐길 수 있는 테마별 코스를 소식지 지면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테마 코스를 안내해드릴게요.





## 쉬운길

민주공원 입구에서 민주항쟁기념관으로 가는 길은 장승터를 기준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입구에서 장승터를 바라보았을 때 왼편에는 계단길이 있고 오른편에는 계단이 없는 쉬운길이 있습니다. 쉬운길은 장애인 통로라고도 부르는데요, 계단이 없이 평평한 바닥으로만 길이 나 있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쉬운길로 들어가 바깥놀이마당, 냇기림마당을 거쳐 가리사리마당으로 가면 민주항쟁기념관 입구까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달팽이 길

민주항쟁기념관 내부로 들어오면 민주항쟁기념관만의 특징적인 나선형 경사로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 위 옥상 전망대까지 원형램프를 따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달팽이의 동글동글한 집과 닮았다 하여 달팽이 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달팽이 길은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내부와 외부가 다 통하여 어디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시설인





동시에 우리 민주화운동사의 구불구불한 여정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 옥상 전망대

민주항쟁기념관 옥상 전망대에서는 부산 시내와 부산항이 한눈에 보입니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전망대도 있는데요, 얼마 전 경사로를 설치하며 그 모습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만 있어 계단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있는 관람객들은 전망대 이용이 어려웠는데도, 한쪽은

경사로, 한쪽은 계단으로 탈바꿈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 풍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 2기의 높이도 다르게 했습니다. 높이가 낮은 망원경은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었으며 어린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



# (평화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바랍니다

김준우 | 평화교육단체포피스 책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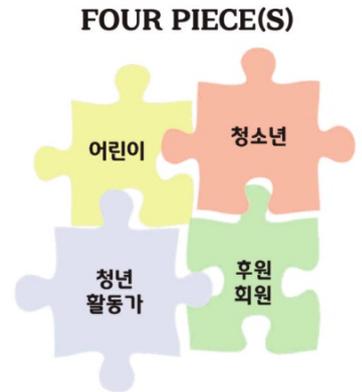
## 평화는 너무 어렵다

평화의 의미란 무엇인가. 필자에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얼버무리기에는 평화교육단체포피스를 운영하며 평화활동가로 지내온 지 16년이다. 2007년 포피스의 창립 당시 이름은 평화봉사단이었다. 평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름이었지만,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교육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포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포피스는 ‘평화를 위한(for peace)’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가지 평화(four peace)’라는 의미도 있다. 평화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해서 포피스가 중점적으로 가져갈 평화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있었고, 해를 거듭하며 한두 가지 바꾸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비폭력, 문화다양성, 반전평화, 생명존중이 되었다. 또 포피스의 또다른 의미는 ‘네 개의 부분/조각(four piece)’이다. 포피스는 어린이활동가, 청소년활동가, 청년활동가, 후원회원, 네 그룹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이끌어난다. 어린이활동가가 청소년활동가가 되었다가, 청년활동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청년활동가가 후원회원이 되고 후원회원의 자녀가 어린이활동가가 된다. 네 개의 그룹은 포피스의 부분을 맡고 있지만 순환한다. 평화는 한두 명의 영웅이나 특정 세대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조금씩 역할을 할 때 갈 수 있는 길이다.



네 가지 평화를



네 그룹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FOR PEACE**  
평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 peace와 平和

물론 포피스가 지향하는 평화가 평화의 일반적인 의미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힌트를 좀 얻을까 싶어 검색창을 켜다. 평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peace의 어원을 살펴보자. peace의 어원은 결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pag-에서 파생된 라틴어 pacem으로 협정, 조약, 전쟁의 부재라는 뜻이다. pacem을 다

르게 부르는 pax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평화의 여신 에리레네를 부르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처럼 로마제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 안정적으로 결속한 것을 평화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Pax Romana)'이다. 물론 로마에 정복당한 이들에게도 평화의 시대였는지는 고민해볼 문제다. 20세기에 등장하는 Pax Americana는 고민할 여지도 없다.(peace의 어원을 살펴보니 포피스 단채 이름을 잘못 지었나 싶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평화는 전쟁의 부재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입에 착 달라붙는 제목의 소설을 쓴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탓도 좀 있다. 물론 수많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의미의 평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비폭력'이다. 비폭력이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정립된 정치이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비폭력 저항주의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디는 인도로 돌아가 톨스토이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은 비폭력 투쟁 '샤티아그라하(진리의 힘)'를 전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자 어원은 어떨까. 일단 평화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없다.(있었다면 우리 단채 이름이 되었을 거다) 평화는 한자로 평평할 평(平)에 화목할 화(和)를 쓴다. 화목할 화(和)를 뜯어보니 벼 화(禾)와 입 구(口)이다. 평등하게 쌀을 나눠 먹으니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로운가. 실제로 많은 분쟁이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난다. 어릴 때 형제간의 싸움 대부분은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났고, 역사상 많은 봉기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일어났다. 세종대왕도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한자 어원에 더 마음이 간다. 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눔의 가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포피스가 지향하는 평화와도 통한다.

### 평화, 비둘기와 안녕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평화교육을 하며 여러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많았다. 평화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했다는 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머릿속에도 떠오른 그 평화의 상징, 바로 비둘기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하얀색 비둘기 한 마리다. 적어도 공원에 모여있는 회색

빛 비둘기 수십 마리는 아니다. 누군가는 비둘기가 입에 물고 있는 올리브 나뭇가지까지 떠올렸을 수도 있다. 비둘기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물론 그것이 비둘기의 잘못이 아님을 밝혀둔다)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피카소 평화의 비둘기 그림>, <유엔 엠블럼>

구약성서와 꾸란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분노한 하느님이 대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벌하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했다고 나온다. 그리고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선택받은 몇몇 동물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멸절했다.(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인간이 했는데 피해는 동식물이 함께 당한다) 비가 그친 뒤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와 물이 빠졌고 평화가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로마 시기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비둘기가 알렸다. 피카소가 그린 국제 평화옹호회의 포스터에도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있다. 유엔 엠블럼도 북극에서 본 세계 지도를 두 개의 올리브 가지가 감싸고 있는 형상의 디자인이다. 그런 유래들이 겹치면서 비둘기와 올리브 나뭇가지는 오늘날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으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평화로운 감정, 평화로운 순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예시로 낮잠을 잘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웃는 표정,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등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지된 화면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화의 소극적이고 정지된 이미지는 평화주의자와 평화학자들에게 고민이었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 앞에서도 머리를 구름 속에 처박고 나는 관참소 하는 이상주의자 또는 비겁자라 비난받았다. 그래서 몇몇 평화주의자들이 적극적 평화, 비폭력주의, 비폭력행동 등의 표현을 가져왔다. 평화는 폭력과 갈등의 상황에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삶의 태도이자 행동 방식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화를 바란다는 점이다. 당연하게도 세상이 좀 더 평화롭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우리는 매일 서로의 안녕(安寧)을 바라며 인사를 건넨다.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의 인사말인 ‘샬롬(shalom)’은 그 자체로 평화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우리도 ‘For peace’라고 인사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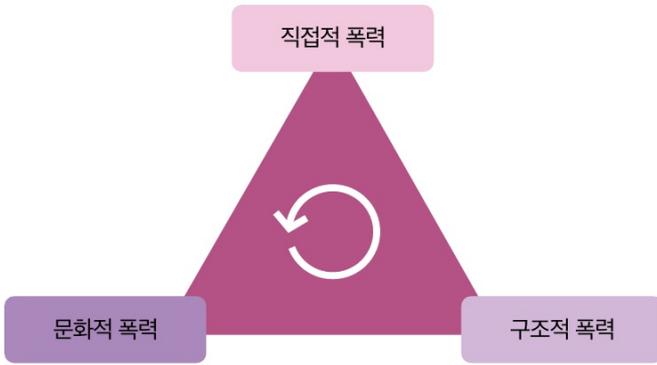
### 현대 평화학에서의 평화와 폭력<sup>1)</sup>

이처럼 평화라는 단어에는 많은 정의와 내포가 담겨 있다. 평화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라는 단어가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반평화적인 수 있다. 수많은 전쟁들이 평화를 명분으로 일어났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전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대, 문화라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평화의 의미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볼딩(K.E. Boulding)은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 정의는 꼭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평화와 폭력의 구조에 대해 정리하였다. 갈통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뿐 아니라 복지, 정체성, 자유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그는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했다. ‘직접적 폭력’은 전쟁, 테러, 학살, 고문처럼 물리력이 동반된 폭력으로 ‘생존에 대한 욕구의 모독’이다. ‘구조적 폭력’은 빈곤, 차별, 혐오와 같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

1) 이 단락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22년 활동가연구지원사업 〈아무튼, 연구〉를 통해 쓴 「16년간의 평화교육-2007년 전후 평화교육의 흐름과 앞으로 가야 할 길」 중 일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 폭력의 삼각형 / 요한갈통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2000)』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 평화와 폭력 / 요한갈통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2000)』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는 사회구조와 권력 관계까지도 지칭한다. ‘복지, 정체성, 자유에 대한 모독’도 폭력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고 은폐하는 데 사용되는 ‘이념, 종교, 법률, 교육, 언론’ 등을 말한다.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은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으며 어떤 꼭지점에서든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폭력의 삼각형은 각각의 폭력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과 폭력의 전염성을 잘 드러낸다.

갈통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고,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이다. 즉 평화는 단지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없애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갈통은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 수단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소홀하기 쉬운데, 평화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저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의미

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이라 하겠다. 물론 갈통의 평화와 폭력에 대한 개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폭력을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원인이나 구조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당신의 평화를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당신에게 평화의 의미란 무엇인가. 필자에겐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가장 쉬운 질문이다. 필자는 평화교사이면서 평화활동가이다. 중요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평화로 정했고 남은 삶을 평화의 가치를 나누면서 살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렇기에 나에게 평화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존중받으며 자라는 것이다.(만 2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죄송하다)

평화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오히려 평화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가르치는 것이 반평화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매’라던가 ‘평화를 위한 전쟁’처럼 평화가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완벽히 평화로운 세상은 없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간디의 말을 기억하자.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평화를 바랍니다.” 

# 안 돼!

고리2호기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김해창 |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고리원전이 있는 부울경 지역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를 보이는 곳이다. 이런 곳에 윤석열 정부는 원전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문재인 정부의 노후원전 폐기 방침을 뒤집어 설계수명 40년이 다 된 원전을 10년씩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수십 년간 부울경 800만 주민은 원전 불안의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며 원전폭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원전단지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만드는 문제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노후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갈 것이며 40년이 넘는 노후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민들과의 공감 없이 무조건 가동해 나간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략할 고리원전 30km 주변에 대한민국 제2의 인구 밀집 도시 부산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다. 역사적으로 세계 3대 원전사고라고 할 미국의 스리마일섬원전사고(1979년 3월 28일, 5등급), 옛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 4월 26일, 7등급),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7등급)는 문명사적 전환을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었고, 특히 체르노빌, 후쿠시마참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영

국 BBC방송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 10주년 하루 전날인 2021년 3월10일 방영한 특집기사 ‘후쿠시마 참사: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Fukushima disaster: What happened at the nuclear plant?)’는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주민 15만여 명이 대피해야 했고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일본 당국은 이미 수십조원의 비용이 든 이 작업을 끝내는 데 최대 4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정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하타 무라 요타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펴낸 『원전안전신화의 붕괴』(2015, 김해창 외 역)라는 책은 우리시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이며, ‘제2의 후쿠시마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서이기도 하다. 이 책 말미에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마인드 7가지를 강조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틀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는다. 그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위험에 바로 맞서 논의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체르노빌원전사고를 보고도 당시 일본 원전 당국은 남의 일로 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원전 당국과 기술자들도 한결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참사 12년을 맞으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원전 안전신화’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사고(事故) 가능성을 예상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자력은 절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이다’라는 말의 허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참사가 증명하고 있다. 친원전 진영이 말하는 경제성이란 정말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합당한 말일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없다. 세계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이 대세이며,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다. 원전단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태양광·풍력발전 단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 196개 폐로원전의 평균 수명이 27.1년이니 40년 가동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원전안전신화’는 깨진 지 오래다. 더 이상 지역희생을 기반으로 한 원전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윤 정부가 원전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 아니라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장기적 전략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 EU기준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일이다. 40년 이상 원전사고 리스크에 시달려온 원전입지 주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계속 안겨서는 안 된다. 원전정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될 일이다.



▲ 맨위에서부터

- 지난 3월 1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철폐기정반대범시민운동본부의 탈핵시민대행진 행사 모습
- 이날 행사장 외곽에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하라!'는 팻말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 부산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 2월 21일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고리2호기 폐쇄 인증샷 챌린지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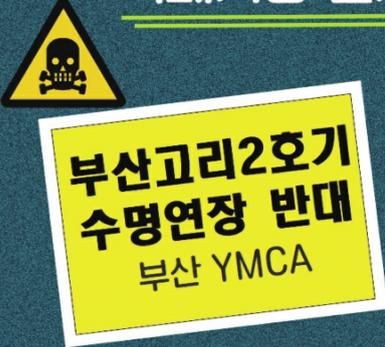
오늘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큰 책무이기에 ‘위기관리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이 끝나고 그 뒤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정책을 폈지만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원자력 관련법에 넣어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친원전 인사들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윤 정부 이후 수명연장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

부울경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입법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개혁 입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폐기해야 한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기존 원전입지 주민의 무한한 희생만 요구하는 임

#부산YMCA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부산고리2호기반대본부 #고리2호기

#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설치 반대 챌린지




예시

## ☆ 챌린지 참여방법 ☆

- A4 사이즈로 홍보용지를 출력
- 문구는 아래의 예시로 변경 가능
  -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 ◆ 부산 핵발전소 건설 반대
  - ◆ 노후 핵발전소 반대
  -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환영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 ◆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 복장에 노란색 포인트를 줄 것 (노란색은 안전, 경고를 의미합니다.)  
(예시: 노란장미, 노란스카프, 노란모자, 노란 가방 등)
- 단체 또는 개인별로 사진 촬영
- 단체 또는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
  - ◆ 필수 해시태그 : #부산YMCA #부산고리2호기반대본부
  - #고리2호기\_수명연장반대 #고리2호기\_핵폐기장반대
  -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법시민운동본부



the 부산YMCA

• 부산YMCA의 고리원전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설치반대 챌린지 홍보지

시방편의 핵폐기장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하려한다면 적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현재 기상군 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부산, 울산 등 원전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한 반대급부는 물론 중대사고 발생시 동시대피해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나 한수원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 또한 심각한 시안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폐로 과정

에서 나오는 삼중수소(트리튬) 등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희석시켜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후쿠시마 어민·주민들은 물론 일본 대다수 국민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궁극적으로 국내 관련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대재앙이 될 것이다.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를 관행이라며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달리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해물질을 전 인류의 생태보고인 해양에 고의 방출하는 반인류 반생태적 국제환경범죄이자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욕외교로 일본 오염수는 물론 일본 수산물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다. 그중 트리튬, 즉 삼중수소가 문제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60여 종에 이르는 방사능 물질을 정화한다고 하나 삼중수소는 물론 스트론튬, 탄소-14(C-14)등은 제거되지 않는다. 오염처리수라고 해도 약 62개 핵종 가운데 53%가 핵종별 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삼중수소나 세슘의 반감기는 각각 30년, 12년 정도인데 국내외 시물레이션을 종합하면 세슘의 경우 제주는 1개월 내, 동해엔 6개월 정도면 오게 된다고 하니 부산의 경우 3~4개월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후쿠시마대학의 연구 결과는 제주도 앞바다에 220일, 동해엔 400일 이내에 도달이 예상된다. 쿠로시오 해류로 해양방류 5년만 지나면 한국 앞바다도 후쿠시마 앞바다와 같은 농도가 된다.

부산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 특히 제주도와 남해가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 일본 수입 수산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어패류, 해초류 소비 기피현상이 늘어나 어업 종사자나 횡집, 생선식당 등은 엄청난 소문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부산지역의 예상

피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에서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하다. 부산시 차원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실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고 단계의 검역 또는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확실히 하고, 중국, 대만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칠레 등 해양인접국가와 연대해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 그리고 IAEA에 적극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정부는 무능하다. 결국 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중 일본 수산물 불매운동, 반크의 '독도의외교전'과 같은 SNS 국제여론전을 펼치거나 우리나라 어민들이 후쿠시마어협 등과 연대해 한일 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고리2호기수명·핵폐기장건설·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를 위해선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 3월 1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본 '안전한 도시! 후쿠시마핵참사 12주기 시민대행진'의 뜨거운 열기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15년 '고리1호 기폐쇄 시민 승리의 기억을 '고리2호기폐쇄 시민 승리의 힘'으로 삼자. 그리고 무도하고 무모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폭주정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형준 부산시정에 대해 지역주권의 이름으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 여야, 진보 보수, 지역, 남녀노소 없이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생명 안전 평화의 동아줄을 길고 굽게 엮어야겠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는 40년간의 운영 허가가 4월 8일 중단되어 4월 9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는 여름호에 이어서 담겠습니다. - 편집자주



# 야만의 페이지를 넘기며

정재윤 | 소설가, 본지 편집위원

지난 2월, 항공 선글라스를 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한 지 일 년째 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수도 키이우 방문이었다. 이는 헛수를 달리하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작금의 국면에 거대한 힘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서방의 결속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이 모든 이슈를 손 안의 뉴스로 접하는 사람들에게겐 별세계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 정체된 전선에서도 매일 천 명씩 전사자가 쏟아질 정도로 치열함은 한 치도 이지러질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전망에 대한 성마른 예상은 쏟아지지만, 분명한 건 시월은 되어야 올해 연도의 전황이 보일 거란 사실이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고전을 예상한 이는 소수에 불과했고, 이렇게 오래 갈 거란 전망 역시 드물었다. 작년 말, 푸틴은 2차 동원령을 내렸다. 국력을 온전히 바닥낼 생각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3차 징집까지는 어려울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흘러온 지금껏 합리적 판단이 작동한바 얼마나 있었는가. 자욱한 포연으로 시계제로인 것은 저 두 나라만의 국지적 상황일까? 오늘날 전 지구인들을 두려움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전쟁은 또 어디에서 진행 중일까?

러-우 전쟁 발발 일 년을 헤는 동안, 시리아 내전은 십이 년째에 접어들었다.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의 한 갈래로 촉발한 시리아 내전을 요약한다는 건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거느린 산을 달리는 말로 훑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몇 자 붙이자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과 그에 맞서는 여러 '반군',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는 'IS'라는 축들을 세운 뒤, 저들을 억제하려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까지, 피아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세력을 불러와야 한다. 전쟁의 참상은 알팍한 언설로 묘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치열함도 열두 해가 지나는 동안, 서서히 국제적 공론의 장에서 밀려났다. 지구촌은 크고 작은 수만 개의 이슈들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반군을 지원했던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는 더 이상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개입



2023.02.2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행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바이든은 5억 달러(약 6천6백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다.

을 원치 않았다.<sup>1)</sup> 이 와중에 러시아는 시리아가 제공하는 지중해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알자사드 정부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전 초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며 사실상 승리를 거둔 모양새다.

12년간 이어진 내전은 시리아의 봄을 꿈꿨던 반정부 세력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참담함만 안겼다. 계속된 폭격과 시가전으로 파괴된 공공서비스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했다. 가족들과 몸을 널 집이 파괴되었고, 주린 배를 채울 음식도 없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60만 명의 시리아인이 내몰린 현실이 그 모양이었다. 작년 9월, 시리아 북부에선 콜레라가 창궐했다. 알다시피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이다. 식수가 부족한 가운데 상하수도를 제공해야 할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오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주요 식수원인 유프라테스강이 오염에 노출되면서 피해는 확산되었다.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강을 따라 흘러들어간 죽음은 결국 누구의 몫이 되었는가.

얼마 전,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의 영향은 시리아의 북서부까지 미쳤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한 자들은 생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도적 손길들이 급파되었으나, 내전과 제재의 영향 하에 있는 시리아의 상황은 튀르키예와 달랐다. 일부 아랍권 국가와 러시아가 물자인력을 보내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했다. 재난을 조명하는 시선조차 공평할 순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리아인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무게에 비례한 관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같은 처지에 놓인 국가가 어디 시리아뿐이라. **미얀마** 또한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아웅 산 수치의 민족민주동맹(NLD)과 소수민족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민족통합정부(NUG)와 군부의 대립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NUG와 시민들의 저항을 경찰과 군부는 서슴지 않은 테러와 제노사이드로 짓밟고 있다. 본고를 쓰고 있는 4월 12일, 군부는 미얀마의 중부 사가잉 지역을 공습해 백 명이 넘는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공군기의 폭격에 이어 헬기의 기총소사가 이어졌다. 작년 시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카친족 기념행사장을 공습해 팔십 명을 죽인 만행으로도 모자란 모양이다. 장기화된 내전은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일상을 앗아갔고, 해당 기간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도 시시각각 늘어만 가고 있다.

**에티오피아**로 시선을 옮겨보자. 미얀마 내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군부와 거기 맞서기 위해 종족을 초월한 저항군의 싸움이라면, 에티오피아 내전은 종족 정치의 갈등이 폭발하여 발생한 결과다. 내전의 주체는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티그레이인민해방전선(TPLF)이다. TPLF는 약 30년간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이었지만,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면서 실권한다. 2018년,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취임하고 평화적 권력양과 함께 국가통합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이 나라는 내전으로 치달게 된다.

정부와 TPLF의 갈등은 티그레이주가 2020년 9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지방선거를 강행하면서 재점화되었다. 선거 연기가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 판단한 TPLF는 자체 선거를 진행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버린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11월부터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전황은 엇치락뒤치락을 거듭했다. 정부군이 티그레이 지역의 주도 메켈레를 장악하거나, 역으로 티그레이 반군이 에

---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방 세계의 이 같은 분위기도 주요했으리라. 타국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세계경제 상황과 맞물렸다. 게다가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았다. 저들쯤이야 충분히 묶어둘 수 있다고 러시아는 판단했을 것이다. 덧붙여 단일 작전권 아래의 군사조직이 미약한 나토 신속대응군이야 처음부터 위협 거리가 되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접 지역까지 진군하며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편이 승리하든 공허한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파괴된 시민들의 삶은 돌이키기 어려워 보인다. 약 400만 에티오피아인들은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는 작년 한 해만도 약 2,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군과 티그레이 반군들은 어느 쪽 할 것 없이 집단 성폭행,

고문, 구금, 학살을 자행했고, 결국 지난 12월 17일, UN 인권위원회는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해당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티그레이와의 전쟁은 안보를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게 정부의 입장 이므로 티그레이 반군의 정전 제안 역시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장기화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2021년 미국의 철군과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세계에 충격을 안겼던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에 맞선 반군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제분쟁이 그렇듯, 일이 그렇게 흐르는 데에 마땅한 소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혼선에서 탈주하여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험준한 산악 국가를 가장 먼저 공격하여 낭패를 본 것은 영국이었다. 그들은 부동항(不凍港)을 찾아 남하하던 제정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로 이 나라를 이용하려 들었다. 하지만 아프간은 1838년 발발한 제1차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다. 두 나라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전쟁을 벌인다. 1919년, 제3차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며 아프간의 최종적인 독립을 맞았다. 그랬던 아프간은 냉전 체제에서 다시 격랑에 휩쓸린다. 원래 비동맹 노선을 따랐던 이 나라에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친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무슬림 무장 단체의 저항이 이어지는데, “성전에서 싸우는 전사”라는 뜻의 ‘무자헤딘’이 등장한 것도 그즈음이다. 소련은 아프간의 친소 정권을 지키기 위해 1979년, 군대를 파병한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1988년까지 십 년이나 이어졌다. 이 전쟁이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할 정도이니 소련판 베트남전의 수렁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아프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각종 무장 단체들이 구성한 연립정부는 곧 군



현지시간 11일, 사가잉주 간발루구 임시정부 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벌어진 최악의 학살극. 백여 명의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3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AP연합뉴스.



“잘 있여라, 아프간.” 철군하는 소련군이 흙바닥에 남겨놓은 글씨.

별들의 세력 다툼으로 유명무실화되고 말았고, 민족과 이슬람 종파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의 싸움 속에서 아프간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소련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내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권력을 잡은 것이 바로 '탈레반'이다. 1994년 결성된 탈레반은 파슈툰어로 '학생'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들은 책과 경전 대신 무기를 들고 아프간을 장악한 반군이였다. 이들에 대한 것이 '북부동맹'으로 알려진 아프간 북부 군벌이였다. 그들은 2001년 미국과의 전쟁 때 연합군을 도와 탈레반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인 모험이 실패하기를 바라며 반소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들이 무자헤딘에게 무기와 물자를 보급하며 소련과의 대리전을 치러온 것이다. 영국과 아프간의 전쟁 때, 소련이 아프간 뒤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러-우 전쟁의 양상처럼.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여러 무장단체 중에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영국과 소련이 밟았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과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공세에 탈레반은 금방 무너졌다. 하지만 연합군의 카불 입성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십여 년간 이어진 모래지옥의 입구였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 약 2,600조라는 천문학적 인 돈을 쏟아부었고, 이 중 아프간군 지원에 97조 원을 사용했다. 약 30만 규모의 아프간 정부군은 미국의 최신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대도시에서 남부 산악지대로 밀려나 게릴라전을 펼치는 탈레반은 낡은 장비로 무장한 6만 명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군은 탈레반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투항한 정부군도 허다했다.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탈레반 군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동안,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이미 아랍에미리트(UAE)로 망명했다. 아프간 중앙 정부는 행정력을 활용하여 영토를 통치하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고, 탈레반과 북부 동맹 같은 무장 세력이 수도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국가의 공백을 메웠다. 아프간 주민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미국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라, 지금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보호하는(또는 위협하는) 사람들이었다.

탈레반의 재집권은 아프간 재건의 실패를 뜻한다. 아프간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 정부와 군 엘리트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착복하는 동안, 탈레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탈레반의 등장 이전부터 아프간은 민족과 종교에 기초한 무장 세력들이 난립하여 내전이 벌어지던 곳이었다. 이러한 권력과 갈등의 구도는 탈레반/반 탈레반의 이분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미국은 아프간 문제에 안일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정치인을 권좌에 앉히고 돈과 군대를 지원하면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국의 공격을 견디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아프간 국민의 정서, 민족-지역-종교가 뒤얽힌 복잡한 관계는 부수적인 요소로 밀려났다. 작금의 아프간의 앞날에 예측 가능한 요소는 무엇도 남아나있지 않다. 인도주의 단체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 국민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내던져있다는 것만이 오직 명징한 사실이다.

작 21세기에 진입하였던 가까운 어제만 돌아보아도 팽배한 낙관론 속에서 인류는 설명 가능한 지대에서 납득 가능한 세상을 일구어가리라 믿었다. 새 천년이 불과 한 해 지난 2001년, 거대한 빌딩에 처박힌 비행기는 장기간평화(long peace)<sup>2)</sup>라는 환상이 깨어지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인간의 기

---

2) John L. Gaddis가 냉전의 종료 즈음한 1986년 발표한 논문의 제목으로, 냉전시대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유럽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분석하였다. 인류의 무기가 결정적인 공멸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게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사에서 전쟁의 휴지(休止)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역력은 삼십 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 이를 법과 제도로 강제해봤자 한계는 육십 년이라고 한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어제까지 고수해온 방법이 오늘 통하지 않다면, 정책이나 국가 전략은 현재 상황에 맞게 갱신되어야 한다. 효력이 상실할 때를 바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국제 갈등의 끝은 전쟁뿐이라는 게으른 사고가 언제 고개를 치켜들지 모른다. 담론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리감을 인식하고, 이를 좁혀나가는 끊임없는 시도야말로 저 슬픈 역사 속에서 교훈의 끝자락이라도 거머쥐는 것이 아닐까.

본 원고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 전쟁과 내전 상황을 열거하는 선에서 갈무리하고자 한다. 방구석에서 여러 읽을거리를 짜깁기하고, 문장화의 수고 정도만 더한 간단한 작업의 끝에 다다라 필자는 한 가지 생각에 붙들렸다. **평화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무수한 죽음이며, 우리가 영위한다는 의식도 없었던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전쟁에 패한 집단의 불행이야 말할 나위도 없고, 승리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행복과는 영원한 결별 상태에 놓인다. 물질과 정신의 양면에서 시달려야 하는 후유증은 물론이고, 가장 나쁜 것은 전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나쁜 믿음과 자기합리화다. 우리는 이 나쁜 믿음을 불식시킬 언어를 개발해야 하지만, 당연히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막연한 언술 이상을 불러오지 못하곤 한다. 국제사회의 논리와 냉엄한 질서 앞에서 이 같은 휴머니스트적 주장은 얼마나 무시당하기 쉬운가.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아연 소년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무시당하고 외면되어온 불편한 이야기를 들추어낸다.

사람은 영화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죽어요. 스타니스랍스키식으로 죽지 않아요. 왜, 영화에선 총탄이 머리에 박히면 양팔을 내저으며 픽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에 총탄이 박히면 뇌가 터져 공중으로 날아가고, 머리가 터진 사람은 그걸 잡겠다고 달려가죠. 한 500미터는 죽히 달려요. 흩어진 뇌의 파편들을 붙잡기도 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생리적으로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고통에 울부짖거나 죽음이 구원이라도 되는 양 죽여 달라고 간청하는 걸 듣고 또 지켜보고 있느니 차라리 총으로 쏘버리는 게 더 쉬워요. 그것도 울거나 간청할 힘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렇지만요. 누워서 서서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장이 쿵쿵 세차게 뛰기 시작해요. 비명을 지르고 의료진을 불러대고…… 그러면 가서 맥박을 재보고…… 괜찮다며 진정을 시키죠…… 뇌는 사람이 긴장을 풀고 편안해질 때를 기다려요…… 의사가 침대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소년은 숨을 거둬요. 방금 전까지 살아 있던 소년이……

이런 일은 금방 잊히지 않아요……

작품은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참전 병사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과의 인터뷰를 모았다. 작가는 전쟁을 몸으로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을 읽으면, 인간이 지닌 야만성에 몸서리가 쳐진다. 이 야만성은 전쟁이라는 장면에 의해 발가벗겨진 채 극대화된다. 인류는 야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역사를 써내려오지 않았는가. 전쟁은 이 걸음과 완전히 배치된다. 작품의 제목이 ‘아연 소년들’인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가? 전사자의 유해가 아연 관에 담겨 돌아왔기 때문이다. 아연 관 속에 잠든 내 아들을 마주해야 하는 야만의 페이지는 이제 그만 쓰여야 한다. 🇰🇷

# 차별 받지 않을 자유

김민우 |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활동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논란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차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혐오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속성이 전형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사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논란의 대상이 된 모스크(정식 명칭 '다를 이만' 경북 이슬라믹센터)는 기도 공간이 필요했던 무슬림 유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기도실을 마련했던 2012년도로부터 출발한다. 시간이 흘러 기도실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하는 무슬림의 특성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2020년에 유학생들은 돈을 모아 사원을 건축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구청의 허가를 받고 순조롭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려던 찰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며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 전화에 대구 북구청은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소송으로 인해 2년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하던 모스크였기에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며 모스크 앞에서 무슬림들에게 있어 금기인 돼지고기 파티를 한다든가, 돼지머리를 놓아두는 등 혐오 행동을 여전히 벌이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밝혀둘 것은, 나는 혐오를 자행하는 특정 인물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혐오는 '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비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혐오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터뷰<sup>1)</sup>를 살펴봐도 7~8명으로 시작했던 기도 인원이 80~90명으로 늘어갈 동안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지금과 같은 두려움이나 혐오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스크'라는 표상이 등장하는 순간, 변화된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혐오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감정으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감정에서도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낯선 존재와 섞이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지며 오직 자신의 '순수한' 공동체만을 긍정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앞의 인터뷰로 돌아 가보자. 기사의 인터뷰이는 무슬림 유학생을 두고 '우리와 왕래가 없었다'라고 말한다. 사실 이든 아니든 이 발언은 꽤나 의미심장하다. 섞이지 않았던 시절의 모스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

1) [갈등의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무슬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vs "평화로운 삶 되찾고 싶을 뿐" 영남일보, 2021.09.07.

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즉 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위에 설명한 혐오의 속성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저서 『혐오에서 인류애로』에 따르면, 자신의 순수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외부 공동체와의 차별점을 찾으며 이것으로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려는 ‘투사적 혐오’가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순수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혐오 선동이 동원된다. 대구 모스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거짓된 믿음이다. ‘이슬람이 동네에 들어나면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축물을 올리겠는가. 테러세력의 지원이다.’와 같은 언설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더욱 문제는 주민들이 단순히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 금기를 동원하며 혐오행동까지 나섰다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이슬람 혐오의 정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을 보도록 하자.



[혐오의 피라미드]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4p에 나온 이미지를 다시 제작.

‘혐오의 피라미드’는 어떤 사회가 어떤 대상에게 지닌 혐오의 양상을 표현하는 도형이다. 대구의 사례는 ‘혐오표현’을 넘어서 ‘차별행위’의 중간 어느 쪼음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주민들의 감정은 이해한다. 낯선 존재가 자신의 삶터에 들어오는 것, 끔찍한 이미지와 함께 배타적인 모습을 가진(것처럼 생각되는)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자기 집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런 종교가 아닐뿐더러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오해나 물이해를 넘어서는 중대한 위협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를 주민들만의 문제로 국한지어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이슬람 혐오정서가 나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폭력 행동을 ‘자유’의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오염된 감이 있지만, 이왕 '자유'라는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자. 이번 사건에 관한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면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논의의 큰 축으로 삼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당연히 이번 일은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가 맞다. 그러나 나는 종교의 자유 너머 자유 그 자체의 문제로 확장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가치이기도 한 '차별받지 않을 자유'다. 각자의 자유나 권리나 충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차별받지 않을 자유가 전제가 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담론은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사람들조차 이 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선언을 받아들여 무엇이 차별인지 얘기해보는 장을 제도권 안에서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대구 모스크 사건은 금세 해

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더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혐오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법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을테니까.

대화는 여기서 중요해진다. 이 세계의 차별은 모습만 달리했을 뿐, 단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대화하지 않았을 뿐.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사회와 개인은 각 층위에서 차별을 자행해왔다. 심지어 차별 받는 대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소수자나 약자들을 차별했던 사례 역시 무수히 많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은 '편해지기'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불편해지기' 위해 만드는 법이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기에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공포감 역시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 그들 또한 함께 살아갈 이웃이 아니던가. 누군가를 단순히 '테러리스트'나 '이슬람혐오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한국에 살아가는 무슬림에게, 모스크 옆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글을 쓰고 보는 우리에게 각자의 손을 내미는 것,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 건축 반대 반대주민들이 연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

# 헌책방 법학책에 숨어있던 열사의 외침

— 故 김상진 열사 관련 사료 기증

김호민 | 민주공원 사료연구

창원향토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전경배 박사(법학)는 어느 헌책방에서 일본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천황기관설을 주장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저술한『日本行政法』을 구매하여 읽던 중 책 속에「양심선언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이 곱게 접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경배 박사가 책방 주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도서의 전 소장자는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로 작고 후 가족들이 헌책방에 매각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양심선언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은 故 김상진 열사가 1975년 4월 11일 서울대학교 학내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칼로 자결하기 전 외친 내용이다.

김상진 열사는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8년 서울대 농과대학교 축산학과(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열망한 열사는 같은 해 6월 서클 '한얼'에 가입하여 문학과 사회사상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워나갔다.

열사는 1971년 군에 입대하였고, 1972년 10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유신이 선포되었음을 알았다. 뒤이어 부대 내에서 치러진 유신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과정에서 공공연히 부정투표가 자행되고 있음을 목격했고,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에 충격을 받은 열사는 1974년 제대 후 복학하여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1975년 4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원자율화와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대거 구속되자 4월 11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들은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김상진 열사는 세 번째 연사로 등장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준비한 양심선언문을 외치며 유신헌법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을 규탄하였다. 또한 조국의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천명하며 준비한 칼로 자신을 찔렀다. 자결 시도 직후 열사는 동료 학생들에 의해 수원의 경기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다음 날인 12월 8시 55분에 사망하였다.

열사의 죽음 직후인 5월 13일 유신헌법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고 모든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으나 열혈도 지나지 않은 5월 2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1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거행한 후, 긴급조치 9호의 철폐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유신헌법체제가 무너진 직후인 1980년 4월 11일 마침내 서울대 농대 교정에서 김상진 열사의 정식 장례식이 치러졌으며 뒤를 이은 전두환 군부독재 체제하에서도 김상진 열사의 뜻이 담긴 「양심선언문」 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민주화운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23년 시무식·참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매년 민주열사 참배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기관인 민주공원, 부설기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의 임직원이 모두 모여 민주공원 뉘기림마당에서 민주열사에 참배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참배 후 “민족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뜻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올해 “시민이 일구는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기조로 민주주의 사회를 일구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같은 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노동조합 간 임금단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23년 신년인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속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는 매년 새해가 되면 신년인사회를 가집니다. 1월 6일 민주공원에 모여 민주열사에 참배하고, 지난해 활동을 돌아 올해 사업 기조와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공동대표인 김정한 부산YWCA 사무총장과 김종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윤경태 부산생명의숲 공동대표가 신년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시민사회 연대와 역량 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고리2호기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 공공성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시민중심 시정과 의정 감시,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민주공원 장승터 장승 보내기

민주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잔디광장의 또 다른 이름은 ‘장승터’입니다. ‘민족통일 대장부’와 ‘민주평화 여장부’ 장승이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장승은 비민주적이고 거래의 하나됨을 가로막은 온갖 썩은 것들로부터 민주공원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999년 개관 때 처음 장승을 세우고, 2008년 진도군 주민이 만들어 보낸 두번째 장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민주공원의 박병목 직원이 직접 만든 세번째 장승을 장승터에 심었습니다. 장승의 아랫부분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2월 직원들이 모여 두 장승을 뽑고 막걸리 한 잔을 올리며 보내었습니다. 민주공원 잔디광장에 새로운 장승이 설 때에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7시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2023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허동윤 상지건축 회장과 이성열 민주공원 경영지원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부설기관인 민주시민교육원의 창립 취지에 맞게 독립법인 설립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갈 것을 승인했습니다. 2023년 “시민이 일구는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사업기조 아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의 대중성 강화, 민주공원 사료관(기록관) 건설 안정화와 실질적 운영 토대 구축, 지역과 함께 하는 기념사업 토대 수립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우리회의 구심력과 협업체계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 <10·29 진실버스> 민주공원 방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의 <10·29 진실버스>가 4월 1일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민주열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유가족 김운중 씨는 ‘자식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 간에 부모에게는 참사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후 증극장으로 이동하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정당 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정주 씨가 유가족을 대표해 발언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부산시민공원으로 이동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0·29 진실버스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작한 활동입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를 3월 24일 부산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7개 소속 단체, 3개의 참관 단체가 함께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우리는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에서 살 권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직접 배상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 민주공원 부속건물(민주주의역사기록관) 착공 맞이 한마당

4월 14일 오전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부지에서 <민주공원 부속건물 착공 맞이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민주공원 풍물패 ‘바깥놀이마당’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김중기 민주공원 관장이 축문을 읽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사상에 술을 올리며 건립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중앙공원, 서구사회복지관, 부산광복회 등 인근 기관 임직원과 공사와 감리를 맡고 있는 건설사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부속건물 공사는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며, 같은 해 11월까지 전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http://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http://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mailto:dohee@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1. 회원 감사증서 발송
2. 가입 후 3만원 상당의 가정용 반려나무 세트 택배 발송
3. 회원의 이름으로 숲 조성을 위한 활동 진행
4. 행사 및 교육 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 ▶ 〈민주달력〉, 뉴스레터 〈마루누리〉 발송
5. 소식지 무료 발송(연 4회)
6. 부산문화회관 전시와 공연 특별 할인가 혜택
7. 회원 간 교류 활동
  - ▶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8.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2023년 정기총회 개최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지난 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시 민운동지원센터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2022년도 연구소 사업에 대해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에 주력했다고 평가했고, 2023년도에도 부속건물에 주의를 집중하는 한편, 연구회 활동을 비롯한 연구소 본연의 업무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연구소는 작년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속건물 운영 인력 확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사료 활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대회 개최, 사료수집 등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라한알**

— 문의 [www.narak.kr](http://www.narak.kr) | ☎ 051) 463-2240

## 나라한알 교육 사업 : 동구 고교 동아리 지원-보드게임 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원 나라한알입니다.

나라한알은 3월부터 동구에 있는 금성고등학교와 부산컴퓨터과학고에 보드게임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한알이 만든 보드게임을 직접 가지고 놀고, 수업 마무리엔 직접 보드게임을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11월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재밌는 수업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어떤 보드게임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 2023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 1.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 2.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 3. 민주공원 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체험

## 민주공원 반나절풍류 : 봄

부산민주공원에서 드로잉피크닉 세트를 대여해드립니다!  
공원에서 드로잉피크닉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 운영 기간 : 2023년 4월 25일(화)~5월 31일(수)
- ◆ 이용 대상 : 청년 및 성인
- ◆ 대여 시간 : 10:00~16:00
- ◆ 대여 비용 : 무료
- ◆ 대여 장소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 ◆ 문의 : ☎ 051-790-7416



## 정전협정70주년특별전 깊은 전선, 펼쳐이는 전장

- ◆ 전시기간 : 2023. 4. 15(토) ~ 5. 21(일)
- ◆ 전시장소 : 민주공원 기획전시실(늘펼쳐보임방)
- ◆ 관람시간 :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아카이브
- ◆ 참여작가 : 김경화 이상희 이동근 전승일 정만영 정재운
- ◆ 문의 : ☎ 051-790-7414



봄이  
봄으로  
오는  
길



꽃피어 봄인가 했다  
새 울어 봄인가 했다  
꽃이 꽃 되어 피는 것은  
새가 슬퍼 슬피 우는 것은  
피껍데기 벗겨내는 인고의 시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봄이 오는 길

꽃피어 온화한 세상  
새가 울 때 깨치는 순리  
그처럼 평화롭게 오는가 싶더니  
인간 세상 위협하는 한 떼의 무리  
봄이 오는 것을 어리석게 알지 못하여  
이 땅에는 봄을 봄으로 맞지 못하네  
봄이 봄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네



사진, 글\_쁘리아 김 사진가

신나는 놀이와 체험,  
공연이 한 가득!

2023

#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체험부스는 오후 3시 30분에 마칩니다.

민주공원 곳곳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Double Stage

주관  민주공원  라이프스  부산어린이교육동무  
BUSAN CHILDREN'S EDUCATION CENTER IN KOREA

후원  BNK 부산은행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서부지회